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 년 11 월 2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의 모든 학생들에게 보내는 **CUOMO** 주지사의 공개 서한

“이곳은 뉴욕주이지, 공포의 주(州)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오와 인종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지사,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그들의 다름과는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주의 노력을 환기시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대학에서 편견 및 차별 사건이 보고됨에 따라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지사는 이 서한에서 뉴욕은 계속해서 모든 차별 사건 희생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증오 범죄 금지 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학생들에게 환기시켰습니다. 이 서한은 주 전역의 SU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UNY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시스템 및 사립대학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견 및 증오 범죄 사건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주 주지사는 뉴욕주 교육 커미셔너(State Education Commissioner) MaryEllen Elia 에게 서한을 보내 학교가 불관용에 맞서고 뉴욕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는 편견과 차별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 직통전화를 개설하였습니다. 편견에 기반한 위협이나 폭력 및 차별을 경험하신 뉴욕 주민들께서는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의 무료 직통전화 (888) 392-3644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의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입니다. 범죄를 신고하고자 하시거나 본인의 안전을 우려하실 만한 상황이 있다면 즉시 911 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포된 주지사의 서한 전문은 이곳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성명서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들께,

가혹하고 흉악한 증오의 말들이 퍼진 후, 여러분들 중 대다수가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뉴욕주이지, 공포의 주(州)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오와 인종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와 기회를 찾아오는 곳이 되어 왔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 대부분이 그 뿌리를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름으로 힘을 얻습니다. 귀하가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불교도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흑인, 백인, 라틴 혹은 아시아인이든, 남자 혹은 여자인, 시스젠더거나 트랜스젠더이든, 우리는 뉴욕주의 모든 주민들을 존중합니다.

자유 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은 미국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상징이며, 우리 항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제공하고 매일 희망을 실현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느낍니다.

귀하가 이곳에 있는 한, 귀하는 뉴욕 주민입니다. 귀하는 우리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며, 우리는 귀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엄격한 증오 범죄 및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법을 철저히 집행합니다. 뉴욕주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성별, 종교, 종교적 관행,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취향으로 대상을 괴롭히거나 차별 및 구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관대하며,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훼손할 수 없고 또 이는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주는 편견 및 차별 사건 신고를 위한 무료 직통전화를 개설하였습니다. 미국 본토 태생이든 이민자이든, 합법 체류자이든 불법 체류자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곳의 모든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직통 전화가 우리의 노력을 굳건히 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신고하셔도 귀하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신 뉴욕주민들께서는 인권국(DHR)의 무료 직통전화 **(888) 392-3644** 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범죄를 신고하고자 하시거나 본인의 안전을 우려하실 만한 상황이 있다면 즉시 **911** 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주민들은 젊은 이민자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우리 주는 이곳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열망 덕분에 번영해 왔습니다. 귀하의 지성, 창의력, 이상이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합니다. 귀하는 이곳에서 환영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